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80호 [루게 제 24858호] 주제 104 (2015)년 3월 21일 (토요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생산정상화의 동음, 사회주의전진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자

청천강계단식발전소 발전설비생산성과 계속 확대

은 대안당이 청천강계단식발전소에 보낼 발전설비생산투쟁으로 부글부글 끓고있다.

민작업날개연마와 조립 등 모든 공정마다에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증산돌격전을 힘차게 벌이고있다.

이 울릴 전력생산의 동음을 건설자들과 함께 책임진다는 결사판결의 립장에서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일과있다.

문과의 령계열에 이달에 4대의 타빈과 3대의 발전기를 무조건 생산보장하기 위한 경제작전과 생산지휘를 잘해나가고 있다.

높여 일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대형기계작장의 기계공들도 보편반, 타빈반을 비롯한 중요기계의 보수정비를 빈틈없이 한데 기초하여 증산돌격전을 벌여 타빈축, 작업날개동체가 공에서 높은 속도를 보장하고 있다.

국가과학원 철도과학원 철도건설연구소에서 콘크리트급결제의 국산화 실현

국가과학원 철도과학원 철도건설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알루미늄을 첨가하여 콘크리트급결제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있는것은 급결특성이 좋은 알루미늄나트륨급결제라고 한다. 그러나 이 급결제는 원료값이 비싸고 생산에 에너지가 많이 드는것으로 하여 지난 시기 우리 나라에서는 대대적으로 생산이용되지 못하였다.

철도건설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성능높은 콘크리트급결제를 기어이 국산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여왔다. 이 과정에 실장 김덕근, 연구사 문창성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수산회알루미나를 들어있는 알루미늄계 복합물질을 이용하여 알루미늄나트륨급결제를 생산하는 기술을 새롭게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 본사기자 전성남 찍음

동발나무생산에서 계속 혁신 립업부분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이고있는 립업부분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동발나무생산에서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부족되는 자재들을 자체의 힘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세우고있다. 각 도립업관리국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자랑찬 노력적성품을 안고 10월의 대추전장에 멋뜻이 들어설 봄날은 열의에 넘쳐 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여나가고있다.

강원도립업관리국아래 각기 광목생산사업소들에서도 한뼘의 동발나무라도 증산하여 수천척적화합장에 보내주기 위한 치열한 생산돌격전이 벌어지고있다.

전내광목생산사업소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립업체들의 예비부속품을 충분히 마련해놓고 마감나르기에 박차를 가하여 동발나무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향토도립업관리국아래 연암, 백양광목생산사업소에서는 나무베기와 사이나르기에 힘을 집중하면서 립업기판차의 자동차들의 수리정비를 간지있게 하고 그 리용성을 높여 많은 량의 동발나무를 생산하고있다.

이달에 들어와 6, 7호발전기의 총조립을 보장한 발전설비조립작업에서 하루가 다르게 조립설비가 오르는 가운데 발전설비들이 점차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있다.

국가과학원 철도과학원 철도건설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성능높은 콘크리트급결제를 기어이 국산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여왔다. 이 과정에 실장 김덕근, 연구사 문창성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수산회알루미나를 들어있는 알루미늄계 복합물질을 이용하여 알루미늄나트륨급결제를 생산하는 기술을 새롭게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국가과학원 철도과학원 철도건설연구소에서 콘크리트급결제의 국산화 실현

증산투쟁에 더 큰 박차를

북창지구 탄광련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북창지구 탄광련합기업소의 탄부들이 산악같이 일어나 석탄증산에 더 큰 박차를 가하고있다.

야간지휘를 잘하는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일군들과 교대분담제를 실시하여 일 석탄증산에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게 하고있다.

10개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이신작적의 혁명적기풍,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일계획보다 더 많은 석탄을 캐내며 질풍같이 달려나가고있다. 2개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운반차량이 먼 조건에 맞게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치고 운반차량의 긴밀한 령계열에 깨번 석탄이 제때에 운반되도록 하고있다.

회안탄광, 송남년련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도 막장조건이 불리한 속에서도 굴진에 역량을 집중하여 전망이 좋은 탄방을 마련하면서 석탄생산전투를 줄기차게 내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생산을 다그치고있다. -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특파기자 리혁철

정론

사복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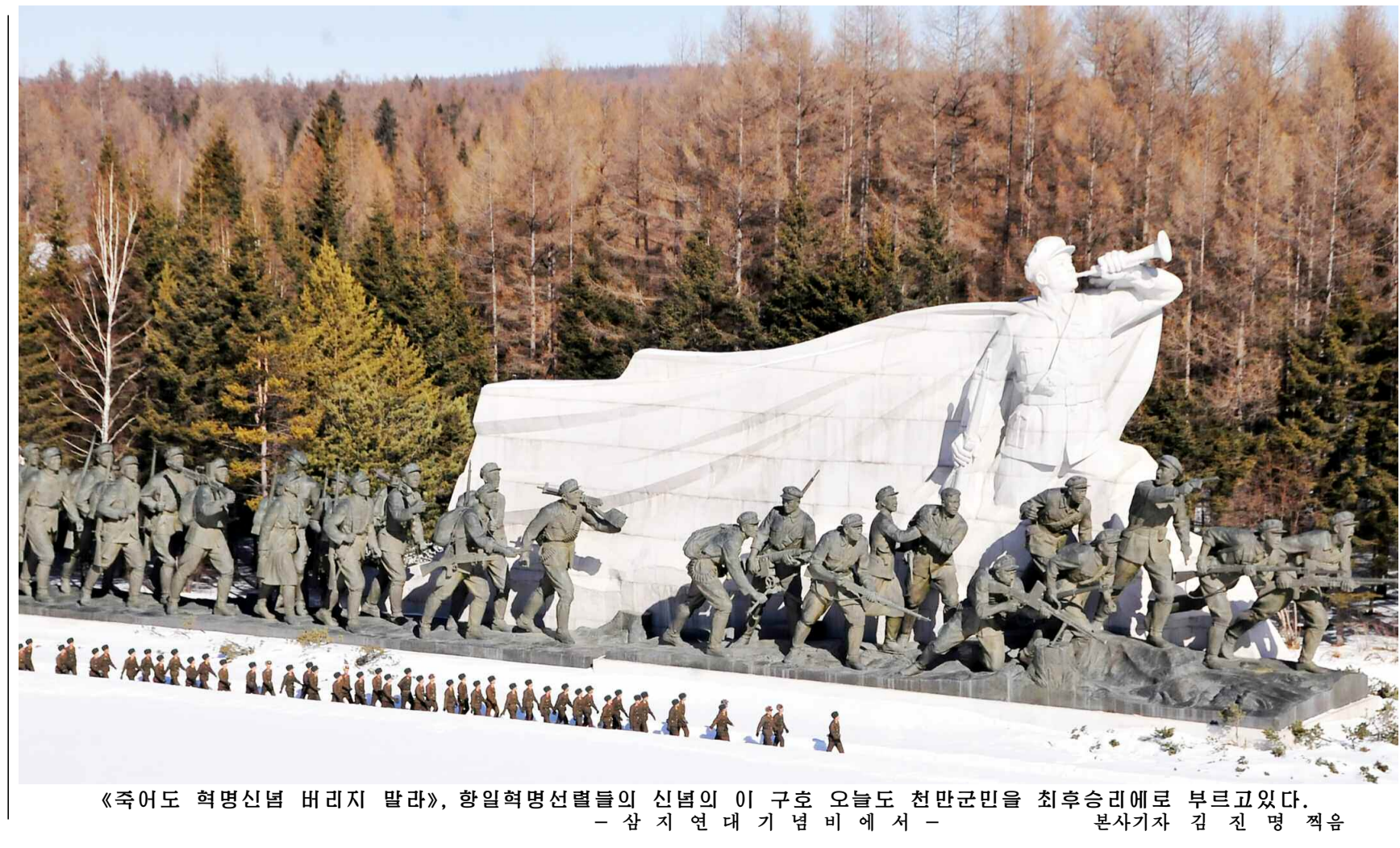
하나의 부름이 엄숙히 울린다.
 뜻깊은 2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우리 일군들에게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후적호소는 이 시대를 진감하는 또 하나의 격문이 되어 세차게 메아리치고 있다.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라!
 혁명의 지휘성원들 누구나 자신들의 본령을 준철히 깨달으며 걸어온 길, 걸어갈 길을 생각하게 하는 이 절절한 부름, 인민이 사는 곳 그 어디서나 로동당 만세를 터치며 고마운 눈물을 쏟게 하는 불같은 진정의 토로,
 이것은 오늘 시대와 인민앞에 다지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엄숙한 선서, 자기 강령에 더욱 크고 뚜렷하게 새기는 힘있는 글발파도 같다.
 당창건 70돐을 승리의 대추적으로 빛내야 하는 중대한 역사적시기에 우리 원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의 가장 위력한 기치로서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높이 추켜드셨는가.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참으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에 가장 뜨겁게, 절철하게 새겨져있는 인민생활상에서부터 변을 일으키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
 이 땅위에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 문명강국, 인민의 지상락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려는 우리 당의 구상이 얼마나 비약적인 전변을 안고있는가를 보라.
 눈부신 문명이 우리 인민의 생활에 거침없이 들어왔고 있으며 10년이 아니라 1년이면 인민을 변화하는 최첨단 과학의 력사가 펼쳐지고 있다.
 대중강기슭에 미래과학자거리가 자기의 웅장한 자태를 드러낼 때 저 저 저쪽에서는 최첨단에 나아가는 조선의 기상을 보여주는 과학기술전당이 솟구치고 있다.
 현대문명의 새 옷을 입고 장천의 담배농장, 열매농장이 도시마을 부럽지 않게 전변되 었을 때 내 조국의 바다에서는 《바다 만풍가》의 노래가, 이 땅의 산과 들에서는 황금산, 황금벌창조의 새 노래가 울려 퍼진다.
 보통날의 절실, 보통날의 창조라면 그것을 대하는 인민의 격정이 이렇듯 뜨겁지 않을 것이다.
 지금껏 우리에게 도전해온 시련과는 대비조차 할수 없는 가장 첨예하고 준엄한 역경속에서 하나하나 설계되고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는 이 시대의 사변들이 가지는 극적인 의미가 있다.
 오늘 원수와의 최후결사전은 인민생활대고 조전투장에서 제일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
 행복의 새봄을 마중가는 우리 인민의 명철을 끌어버리려는 미제의 살인적인 광기는 각 방면에서 전례없는 도수로 극대화되고 있다.
 감히 《전쟁양평》까지 떠들며 버려놓은 대규모정쟁연습들이 아니다.
 경제적압살이라는 악착스러운 제재동맹을 불타고 도처에서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는 폭탄질을 일삼고 있다.
 쌀 한알, 나사못 하나도 흘려놓지 못하게 하여 우리를 한사코 굶겨죽이고 말려죽이자는 것이다.
 이 전대미문의 시련속에서 우리 당이 제일 믿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누구들을 믿고 당은 가장 어려운 속에서 가장 높은 목표를 제기한 것이며 강경선언의 설계에도 조곰도 주저없이 승리의 화살표를 힘있게 고가하는 것인가.
 그들은 이 나라 인민이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품들여 키워주신 혁명가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두어깨에 걸머진 미더운 전위투사들인 우리 일군들이다.
 지금은 모든 일군들이 항일선열들이 펼쳐신의 행진을 두르고 백두산으로 들어 가던 것처럼 결사의 각오를 안고 인민부부의 최후결사전을 과감히 뛰어넘어야 할 때이다. 억척만변 죽더라도 원수를 치자는 웨

침처럼 억척만변 죽더라도 인민의 행복을 쫓아우자는 구호를 매일, 매 시각 심장에 안고 살아야 할 때이다.
 혁명의 성배, 조국의 천사만사가 일군들에게 달렸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거머쥐어 관철하자고 해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를 하늘땅처럼 만들자고 해도, 세계적인 우리 의도로 최후승리의 시공간을 앞당기자고 해도 그 모든 중진이 일군들의 어깨 위에 실려 있다.
 한해건 1월의 평범한 하루에 우리 다시 서본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의 집무탁우에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의 단면을 담은 사진들이 놓여있었다. 물고기자를 맞이해 기뻐하는 보양생물, 생선국에 술을 뜨며 좋아하는 애들, 저지마다 앞을 다투며 공급받은 물고기들, 낚시하는 과학자가족들의 모습...
 기쁨에 겨워 웃고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우리 원수님께서는 형언할수없이 벅차오르는 걱정을 담아 이렇게 써나갔었다.
 정말 이런 멋에, 이렇게 순간에 속이 한 번씩 뭉클해지는 행복에 도취되어보려고 힘들어도 웃으며 투쟁속에 사는것 같다고, 우리 인민들이 매일매일 이런 풍족한 생활속에 웃고 떠들며 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 투쟁목표를 지향하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바탕으로 힘과 용기를 모아 백배하여 일을 더 잘해야가자고 힘주어 새기시던 글발.
 멸사복무라는 말은 이렇게 태어났다.
 멸사복무!
 인민의 행복을 자나깨나 꿈꾸시는 절대위인의 소연의 세계에서 태어나 로원의 불길마냥 시시각각 이 땅을 불붙이며 천만인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또 하나의 시대이,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혁명언어,
 혁명가들의 복무정신, 인민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사랑의 열도를 혼합하여 있어서 이보다 더 뜨겁고 희생적이며 절대적인 투쟁의 대명사는 없을 것이다.
 멸사복무, 그것은 말 그대로 자기의 한복슴과 인민의 행복을 맞바꾼다는 것이다.
 생명을 내건 이런 복무, 죽음을 각오한 이런 복무는 인류역사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일찌기 있어보지 못하였다.
 인민을 위한 우리 당의 뿌리깊은 복무의 력사에 새겨진 금문자들을 돌이켜본다.
 인민의 심부름군이 되라!
 오랜 세월 력사박에 밀려나 온갖 굴욕과 치욕을 속명으로 감수하며 착취계급의 노예로, 땅굴노로 살아온 인민을 이 세상 가장 존엄하고 신성한 존재로 떠받치시며 우리 수령님께서 울리신 복부의 종소리였다.
 주제 42(1953)년 3월 1일, 미제 남강도들과의 가렬한 전쟁이 벌어지고있던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 소집하신 회의는 전선의 운명을 논하는 작전모임이 아니었다.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들과의 협의였다. 전쟁으로 하여 병력된 인민생활을 두고 그 리도 가슴아파하시며 일군들은 인민의 성실한 심부름군이 되어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 주신 그날에 이어 얼마나 가슴뜨거운 인민복무의 성스러운 력사가 이 땅에 울렸던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군들은 인민에게 호령하고 인민위에 군림하는 판교가 될 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참된 총부이 되고 성실한 심부름군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그 위대한 모범을 보여 주신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인민을 위하여 끊임없이 누벼가신 그 길에 막아나섰던 높은 산, 험한 고개들이여 말하라.
 그 산, 그 골에 메아리치던 수령님의 음성들.
 산이 높으면 백두산보다 더 높겠는가 하고 하시며 백두산에 오르는 심정으로 인민을 위해 험한 길도 웃으며 걸으시던 우리 수령님의 자욱따라 인민의 새 락원, 별세상이 펼쳐진 것이니가.
 우리 수령님께서 첫 폐지를 쓰신 인민에 대한 복무의 력사는 위대한 장군님의 절거

한 정도로 더욱 굳건히 이어졌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인민군대에는 《조국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가 있는데 일군들의 구호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그 앞장에서 폭풍처럼 내달리신 우리 장군님,
 그들의 한생을 추억하는 인민의 마음은 왜 이리까지도 눈물겨운 것인가.
 병사들과 훌륭한 인민을 위하여 땀을 흘리며 강행군할 때가 제일 마음이 편하고 백날을 호강하는것보다 더 좋다고 하시며 한생 눈보라속에 사시고 선군을 하시던건만 그것도 모자라신듯 인민복무의 야전렬차를 12월의 그 가슴젖기는 길로 몰아가신 우리 장군님의 불사신같은 모습을 생각하면 아직도 인민의 마음엔 피눈물이 흐른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남겨주신 인민을 위한 복무의 계주봉에 우리 원수님께서는 다름 아닌 멸사라는 두 글자를 새겨넣으셨었다.
 세기와 더불어 변함없이 대를 이어 계승되며 더욱 승화되는 인민복무의 세계!
 희생의 열도와 세기에 있어서 최절정을 이루는 이 성스러운 복무의 세계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에 대한 대답을 조선로동당의 인민관에서 찾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산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나가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인민을 대하는 조선로동당의 관점과 립장이 어떤 경지에 이르렀는가를 이 한마디가 다 말해주고 있다.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 있어서 인민은 한평생 떠받친 하늘이었다.
 그 사랑 못 있어 인민은 얼마나 목청껏 노래했던가. 인민이 하늘이라면 그 하늘의 태양을 위대한 수령님들이시라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인민을 받들자는 우리 당의 뜨거운 진정,
 인민의 지위가 이렇듯 높아본적이 그 언제 있었던가.
 그것은 한평생 인민위해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생을 길이 빛내어가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적의리가 낳은 충정의 최고발현이다.
 인민!
 우리 당에 있어서 그것은 곧 위대한 수령님들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남기신 가장 귀중한 유산도 인민이고 오늘도 살아있는 그분들의 넓이며 가름수 없는 피와 살도 인민이다.
 그래서 인민의 모습이자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산으로 안겨오는 것이고 위대한 수령님들께 바치는 충정이자 인민에게 바치는 충정으로 되는 것이다.
 자기를 희생시켜 주며 내지애 생명을 더해주는 흰눈과도 같은 그치없이 깨끗한 진정과 티없는 량심,
 마지막 순간까지 제 한몸을 태워 빛과 열을 더해주는 초볼과도 같이 인민을 위해 배를 깔고 살을 지미는 무한한 헌신성,
 이것을 신념화, 체질화한 일군은 다른데서 인생의 재미, 인생의 락, 인생의 영광을 찾지 않는다.
 나의 피와 살로 인민의 행복을!
 일군의 삶의 보람은 여기에 있다.
 결실이 없이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말하지 말라.
 우리 인민이 오래도록 기억하고 우리 당이 시대의 궁극로 여기는 일군들은 배외없이 말보다 실천이 앞선 사람, 인민에게 바치는 열매로써 자기의 당성을 검증받은 실천가형의 인간, 실력가형의 인간들 이었다.
 당의 기초축성시기의 일군인 심정완동지, 위대한 장군님께서 80년대의 김혁이 라고, 한층의 제로 사라질지언정 혁명앞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레 헤 탄
 이란 이슬람공화국 대통령
 하 싘 루 하 니 각 하
 나는 이란세해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이란이슬람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모든 분야에 걸쳐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4(2015)년 3월 20일 평 양
 튀 니 스
 튀 니 지 공 화 국 대 통 령
 무함마드 알 바취 까이드 와 싹씨각하
 나는 튀니지공화국 국경절 59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나라의 안정과 민족적단합을 실현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4(2015)년 3월 20일 평 양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항일혁명선열들의 신념의 이 구호 오늘도 천만군민을 최후승리로 부르고 있다. - 삼 지 연 대 기 념 비 예 서 -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결사관철,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으로 황해남도물길공사를 힘있게 다그치라!

기술혁신은 새 기록, 새 기적창조의 원동력

지난 2월말 자강도려단이 맡은 공사장에서는 만세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물길굴공사 완공하고 평양하늘을 우러러 합성을 목격했 터지는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환희에 찬 얼굴들 마다에는 새 기록, 새 기적창조자의 영예를 계속 빛내며 모든 대상공사를 짧은 기간에 와다닥 끝낼 결사의 각오가 비껴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의 전세대들이 피와 땀을 바쳐 이룩해놓은 이 땅의 모든 재부들을 소중히 여기고 더욱 빛내며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을 의거하여 모든 것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려단이 물길공사장으로 제 일먼저 물길굴건설을 완공한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려단일군들이 기술혁신은 새 기록, 새 기적창조의 원동력이라는 확고한 편견을 가지고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으로 부단적인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나간데 있다.

여기에서 중시한 문제가 있다. 우선 기술혁신을 대중적인 사

업으로 전환되도록 한 것이다.

려단이 맡은 물길굴공사 마지막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부터 전투장에서는 물론 동운반량이 훨씬 늘어났고 로력은 물론 휘둘러 버린 자재들도 더 많아 요구하였다. 이런 현실은 기술혁신을 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하여도 돌격대원들은 기술혁신은 기술자나 하는 것으로 여기고 이 사업에 맡겼고 나서지 않고 있었다.

이로부터 일군들은 기술혁신을 려단의 첫째가는 과업으로 제기하고 대중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한 투쟁을 공세적으로 벌였다. 일군들부터가 대중의 앙양에서 힘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쳤으며 그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돌격대원들도 당앞에 다진 맹세를 지키자면 기술혁신을 해야 한다는 확고한 편견을 가지고 이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결과 많은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공사속도를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기술혁신인들이 창안되어 물길굴공사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게 되었다.

려단장 양영찬동무가 발기한

취틀대신 블록을 리용한 면벽 콘크리트벽공사방법을 놓고 보자.

중전에는 면벽콘크리트벽 공사를 진행할 때 휘둘러 고정하기 위하여 많은 발대목이 들어갔다. 하지만 이 방법을 도입하면 블록을 리용하여 휘둘러 발대목을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속도를 3배 이상 높일 수 있다. 또한 시공이 험하게 건축에서 미학성을 철저히 보장할 수 있었다. 이 방법은 다른 려단들의 주목을 끌었다.

전전군대에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조구통을 리용하여 혼합물을 운반하는 방법을 창안 도입하여 작업을 험하게 하면서도 공사속도를 높였다. 이 방법은 사장을 리용하지 않고 물길굴에 조구통을 설치하여 혼합물을 굴입으로 직접 떨어뜨리는 방법이다. 보기에는 별차 없이 보이지만 착상이 기발하고 자체도 얼마 들지 않는다. 더욱 좋은 것은 종전보다 1/4로 줄어 들지만 작업능률은 2배로 올릴 수 있다.

이것만이 아니다. 무른암질 구간이 나타났을 때 m공법에 의한 물길굴확장 및 콘크리트벽공사방법을 도입하게 된 것도,

자동차에 의한 버럭처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 많은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일을 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물길굴공사기간 수십건의 기술혁신안들을 창안 도입하여 공사속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최대의 악조건에서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연유를 리용하는 압축기와 양수기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 공사속도를 종전보다 2배로 올린 것도 그들의 창조적 지혜를 합치게 한 결과에 의하여 이룩된 성과들이다.

다음으로 중시한 문제는 절약을 곧 생산이라는 편견 밑에 기술혁신을 진행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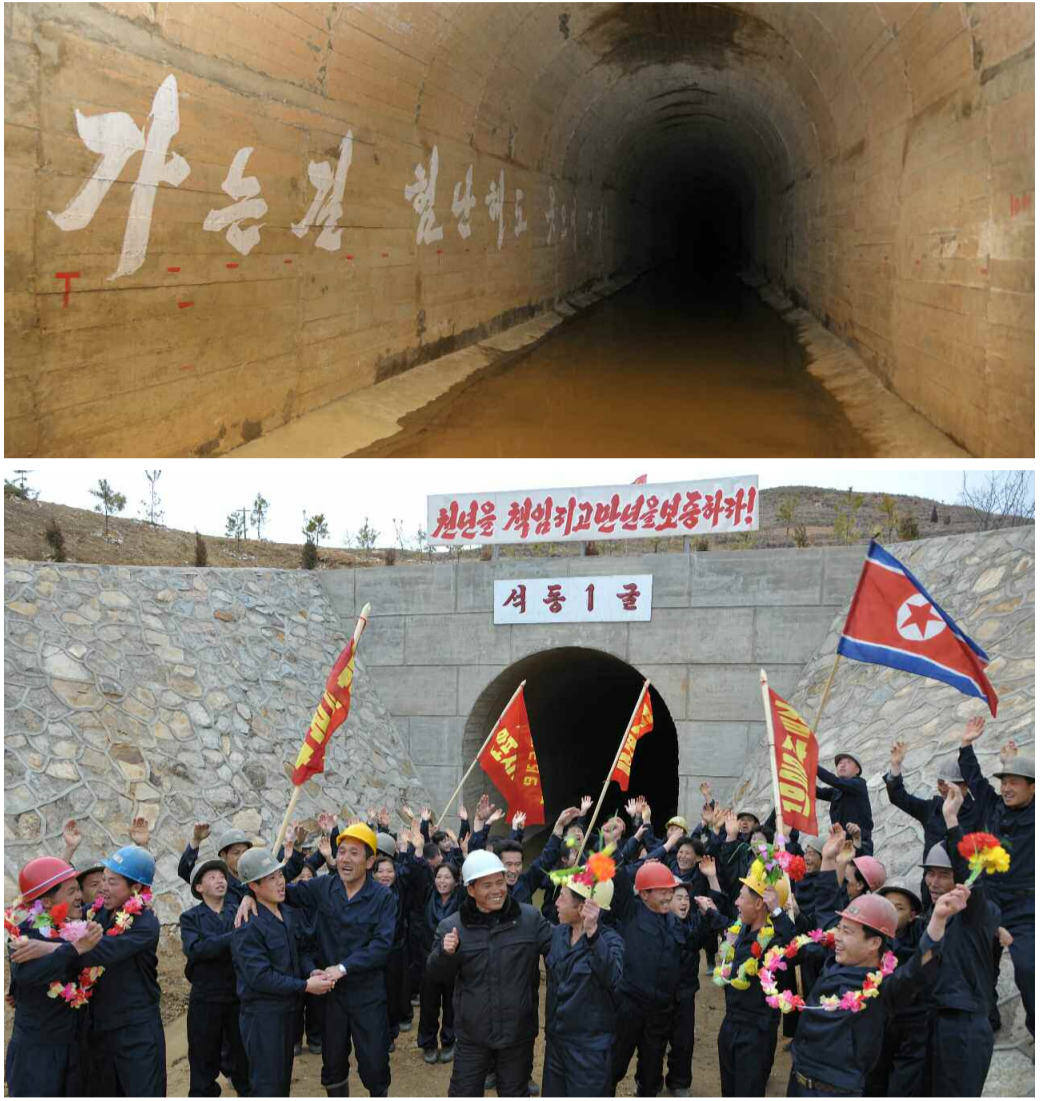
일군들은 절약은 곧 생산이며 애국심의 발현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 깊이 새기고 한그의 세멘트, 나무 한토막도 귀찮이 아껴쓰도록 정치적인 확신을 증중하였다. 일군들부터가 이 사업에 앞장서서 모든 돌격대원들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살림살이를 건전하게 하도록 하였다.

그 한가지 실례가 도폭선이 음법을 창안 도입하여 많은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공사속도를 높였다는 점이다. 지난 시기에는 발

파에 리용하다 남은 자투리도 폭선들은 다시 쓰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일군들은 물론 돌격대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려단정치부장 최길준동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이 다 나라의 재산인데 어떻게 하면 다시 리용할 수 있겠는가를 모색하던 과정에 그 방법을 찾아내게 되었다. 자투리도폭선들을 붙이면 얼마든지 재생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비록 그 량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나라의 재산을 제 살처럼 여기며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런 기발한 착상을 할 수 있다. 진동다짐기의 진동봉을 타빈날개를 달아주고 압축공기를 동력으로 리용함으로써 화를 복으로 만든 것을 비롯하여 일군들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편견을 가지고 일을 해나갔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일군들이 기술혁신의 앙양에서 대중의 창의성을 적극 불러일으켜 찾아낸 귀중한 씨앗들이고 원공의 기쁨을 남기지 가져다준 기적창조의 열매였다.

경험은 일군들이 자기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부단히 새것을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간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면이 손상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때 려단참모장이 한가지 안을 내놓았다. 콘크리트벽공사를 한 벽면에 보호벽을 쌓자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상부확장에 앞서 압축조건에 맞는 천공매치와 발파방법을 받아들여면 발파를 하면서 튀어나는 버럭이 공

는 언제나 방도가 생기는 법이다. 일단 방도가 선 려단의 일군들은 이것을 모든 대대들에서 받아들여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여기서 잘한 것은 시범단위를 바로 선정하고 치밀한 경영열공을 일으킨 것이다.

일군들의 토론이 거듭되는 속에 여러가지 안들이 제기되었지만 결정된 것은 중간순위에 있던 함흥시대를 시범단위로 정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지난 시기 앞서나갔던 대대들을 더 분발시키며 뒤떨어진 대대들도 할 수 있다는 심심을 가지고 전투에 달려들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그대로 은을 냈다. 함흥시대가 려단에서 정한 공사방법을 받아들여 앞서나가는 려단이 부글부글 끓었다. 모든 대대들이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이 공사방법을 도입하여 공사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려단은 많은 로력과 자재,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공사속도를 3배로 높일 수 있었다.

돌 파구를 누가 열었는가

황해북도려단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숭고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사복무하여야 하며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맡아지고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물길굴 공사장에서 버럭운반은 밀차를 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황해북도려단의 여러 대대에서는 밀차대신 자동차를 버럭운반에 리용하고 있다. 시공량보다 리얼성능의 말에 의거한 버럭운반에 자동차를 리용하면서 실적을 종전보다 6배로 올렸다고 한다. 이것은 커다란 혁신이다. 일반적으로 밀차는 최고 1의 버럭을 선진만 자동차는 적제능력에 따라서 5이상 실을 수 있다. 또한 운반속도도 밀차보다 빠르다. 버럭운반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발한 착상이다.

그러면 혁신적인 방안의 발기자는 누구인가?

려단이 맡은 대상물공사를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무조건 결

사관철하자. 일군들은 이런 각오를 가지고 물길굴공사에 달려들었다. 운반속도를 높이고, 버럭을 많이 실도록 하였다. 그런데 려단이 맡은 물길굴공사가 마지막단계에서 벌어지면서 난문제가 생겼다. 물길굴이 점점 깊어지면서 버럭운반속도가 그에 맞게 따라가지 못하여 공사속도가 떨어졌었다. 일부 일군들은 이런 현상이 공사과정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뒤집을 했다.

하지만 려단장 신성철동무는 물러서지 않았다. 어떻게 하나 해결방도를 찾아야 한다.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을 위전으로 애로공물을 힘있게 불러일으켜 황금대의 새 역사를 창조한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일한다면 못해낼 일이란 없다. 이렇게 결심한 그는 밤을 새워가며 지난 시기 물길굴을 뚫는 과정에 창조된 경험들을 분석하고 대대일군들과 돌격대원들도 만나보았다. 그 과정에 버럭운반에 밀차대신 자동차를 리용하면 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방도를 찾아내게 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그는 물길굴의

전구간을 알아 보면서 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물길바닥을 손질하고 여러 구간의 장애물들을 처리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었다. 결심이 확고해진 그는 려단정치부장과 이 문제를 토의하였다. 정치부장 최길준동무도 기뻐하며 당장 운반로선을 닦자고 하였다.

즉시 전투가 벌어졌다. 화선식 정치사업이 힘있게 벌어지는 전투장에서는 열의 혁신이 창조되었다. 일군들이 어렵고 힘든 작업의 맨 앞장에서 합마를 휘둘러며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김정은동무의 조구통을 볼 때부터 산악같이 펼쳐나선 돌격대원들도 낮과 밤이 따로 없이 힘찬 전투를 벌였다. 그리하여 보름이상 걸린다고 하던 운반로선을 한두일만에 정리하고 버럭을 실은 첫 자동차를 통과시켰다. 이 대단한 작업은 놀라운 실적으로 이어졌다. 경험은 일군들이 당에서 준 과업을 제기일에 무조건 관철할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혁신의 돌파구를 열어나간다면 어디서나 이런 기적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부름, 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패배주의, 보신주의, 요령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중호를 받아안은 려단정치부장 최영철동무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것은 지금의 공사속도로는 려단이 맡은 여러개의 물길굴건설을 당앞에 결의한 날까지 해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공사속도를 높일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이었는가. 이런 생각으로 그는 려단장 한배속동무와 함께 공사장들을 돌아보았다. 이 과정에 그들은 한가지 문제점을 포착하게 되었다.

공사속도를 높이지 못하는 것이 물길굴건설에서 콘크리트벽공사를 선행시키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는 것이었다. 더우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무슨 일이나 해내야 할 때는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달려들어야 하며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보려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황해남도물길공사를 제기일에 무조건 끝내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남포시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높다.

당의 구상과 결심을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결사관철하자.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가슴은 이런 철칙의 신념과 의지로 세차게 끓어올랐다. 물길공사장에서는 비약의 불비함이 물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려단앞에는 뜻하지 않은 정황이 조성되었다. 수백m의 물길굴을 뚫고 있던 구간에 진흙층이 나타났던 것이다. 일군들은 선뜻 결판없이 주저없이 편안한 길을

이 뚫어낼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군들 모두가 초조감에 싸여 있었다. 일부 일군들은 굴을 뚫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흙물길을 건설하자고 하였다.

이때 려단장 김중일동무가 8000여m²의 땅을 파헤쳐 흙물길을 건설하면 없어진 농경지는 무엇으로 보상을 하고 물었다. 그의 물음에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침묵속에 한 초초조조가 흘렀다. 그들을 둘러보며 려단장은 물론 흙물길을 건설하면 위훈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가릴한 전회의 나날이 인민군용사들이 한치의 땅을 피로써 지켜냈고 대개도간척지 건설자들은 자연의 횡포와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며 조국의 대지를 넓혀나가지 않았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룩한 난판앞에 주저없이 편안한 길을

택할 수 있겠는가고 말하였다.

그의 절절한 호소는 모두의 가슴을 울리었다.

먼 후방에도 조국과 후대들앞에 물길건설이라고 몇몇이 말할 수 있게 살며 투쟁하자. 일군들은 이런 편견에서 어떻게 하면 물길굴을 뚫겠는가 하는 사색과 토론투를 거듭하며 방도를 모색하였다. 려단시공과장 림태성동무가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그것은 도갱을 작게 뚫어 진흙층이 굴을 내려누르는 힘을 최대한 줄이자는 것이었다. 도갱굴진을 해나가면서 동발을 세운다면 굴이 불량될 수 있는 위험을 소멸 제거할 수 있었다.

서로의 창조적지혜가 합쳐지는 속에 도갱굴진속도를 높이기 위해 광복에서 맞받아 뚫자는 좋은 안도 나왔다. 물길굴공사를 성파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이것은 모두의 지지를 받았다.

혁신적안목과 높은 공사속도

함경남도려단에서

처지는 속에 좋은 방안이 나왔다. 그것은 콘크리트벽공사에서 종전과는 달리 하부확장에 이어 콘크리트벽공사를 진행하고 버럭을 처리한 후 상부확장과 콘크리트벽공사를 하는 것이었다.

이 방법으로 하면 시공에서 복잡성을 없애고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할 수 있었으며 많은 시간과 자재를 절약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로 되기는 상부확장을 하기 위해 발파를 하는 경우 콘크리트를 친 하부벽

크리트벽면에 손상을 주는 요소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얼마든지 공사속도를 높일 수 있었다.

여기서 려단의 일군들은 당의 뜻대로 도식과 경적을 끌고 모 든 것을 혁신적이고 과학적인 안목으로 대할 때 문제해결의 열쇠도 찾아내게 된다는 교훈을 찾게 되었다.

이 공사방법은 려단의 실정에 맞는 것으로 하여 모두의 지지를 받았다.

결심하고 달려붙는 사람에게

일군들은 지난 시기 맡겨진 과제를 언제나 넘쳐 수행한 대대들의 경험을 분석해보는 과정에 사비주의경쟁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잘 알게 되었다.

당의 뜻대로 경영열공을 일으켜 집단적혁신의 불길은 지지부진 리자. 이렇게 결심한 그들은 경쟁요강을 작성하였으며 시범단위를 선정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었다. 그것은 이 사업이 단 순히 앞서나가는 단위를 평가하고 내세우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단위가 다 혁신을 창조하도록 하는데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시범단위를 잘 정하는 문제는 전투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는가 못 하는가 하는 매우 심중한 문제였다.

일군들의 토론이 거듭되는 속에 여러가지 안들이 제기되었지만 결정된 것은 중간순위에 있던 함흥시대를 시범단위로 정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지난 시기 앞서나갔던 대대들을 더 분발시키며 뒤떨어진 대대들도 할 수 있다는 심심을 가지고 전투에 달려들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그대로 은을 냈다. 함흥시대가 려단에서 정한 공사방법을 받아들여 앞서나가는 려단이 부글부글 끓었다. 모든 대대들이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이 공사방법을 도입하여 공사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려단은 많은 로력과 자재,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공사속도를 3배로 높일 수 있었다.

생명수 넘쳐흐를 황남땅의 캐일을 향하여 질풍같이 달려라



← 함경남도려단에서 ↑ 황해남도려단에서 함 주 군 대 대 에서

교육사업을 중요한 국사로 내세우고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강하게 밀고나가자! (공동구호에서)

주인이 되어 도맡아 나서자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우리 나라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높은 경지에 올려세우려는 당의 결심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꾼들이 교육사업을 그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맡아 해주는 참된 주인이 되어야 한다. 평안북도인민위원회 일꾼들의 사업경험이기에 대한 증시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중앙과 지방의 당, 국가경제기관 책임일꾼들을 비롯한 모든 일꾼들이 교육사업에 대한 출발의 끈을 가지고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조선로동당 제 1 비서와 발걸음을 같이하여야 하겠읍니다.》

교육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일을 스스로 찾아하면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일을 스스로 찾아하면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몇몇 현 이곳 도인민위원회 일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 12기 제 6차 회의에서 전반기 12년제의 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법령이 채택되었을 때 커다란 격정과 함께 광범위한 인민적 관심을 보였다. 조국의 미래를 위해 교육사업을 그토록 중시하시는 그의 높은 뜻을 이해할 때 주인의식을 제대로 해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서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일꾼들의 일본새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사람마다 감탄을 금치 못하는 동림중등학교의 건설과정을 놓고도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몇몇 현 도에서는 동림군에 있는 중등학교를 개건할때 원아들의 교육조건과 생활조건을 개선해 나갈 통이 큰 작전을 세웠다.

이 사업을 맡은 도인민위원회 국장 김철남동무는 이게 무슨 거냐고. 깊은 생각 끝에 그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평양건축종합대학이었다. 원아들에게 이렇게 제일 먼저 찾아간 새 교사를 지어주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대학 일꾼들은 가슴이 뭉클 젖어 있었다. 김철남동무는 학원교사형성 도안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렇게 평양까지의 먼길을 여러 차례 오갔다.

뿐만 아니라 건설에 필요한 수많은 자재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단위를 찾고 있으며 이와 함께 노력하였다. 수백의 설계도와 수십의 강제, 110여개의 수직창고와 1400m²의 철관지붕 등 그야말로 엮고 밟고 걸으며 마비해온 귀중한 자재들을 새 교건설을 시작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건설은 순조롭게만 진행되지 않았다. 연건평이 2760m²에 달하는 3층짜리 새 교사를 짓자니 자재가 어방없이 모자랐다. 건설이 중단될 수 있는 난관이 조성될 때마다 김철남동무는 당에서 중시하는 교육사업의 주인이라는 확고한 관점에서 서서 모든것을 도맡아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에서 중시하는 교육사업의 주인이라는 확고한 관점에서 서서 모든것을 도맡아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때 교육자들이 좋아하던 말이 있지요.》

조용히 미소를 짓는 그의 모습을 보며 부사일꾼들은 뜨거운것을 삼켰다. ...

동림중등학교의 교육자들과 원아들이 잊지 못하는 일꾼들속에는 도인민위원회 이데올로기부장 김철남동무도 있었다.

몇몇 현 어느날 학원을 찾았건 그는 원아들의 인사를 받으며 가슴이 찢히듯했다.

《도와주려고 간 걸음이었지만 학원을 돌아보고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마음이 무거워졌었다.》

이날 두 일꾼은 원아들의 생활을 더 잘 보살피기 위한 문제를 놓고 오래도록 토론하였다.

며칠후 김철남동무는 원아들이 따뜻한 호실에서 잠잠하게 잠을 자고 있고 교육자들도 자주 찾아와 어려운 일감을 스스로 도맡아나서며 이 땅에서 후대사망의 대항원은 더욱 만만하고 인재대군의 발돋움시키는 강산을 전담하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김병훈

수로, 바줄도 해결해주었으며 그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정서생활에 리용하라고 중풍기와 체승기, 온습제, 운동복 등도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이들이 많은 품을 들여 특별히 제작설치해준 증기발가마는 지금 원아들의 식생활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있다.

이밖에도 당의 평도업적이 깃든 신의주영애군인학원과 평안북도도서관, 파산군 미래원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이 조국의 미래를 위해 김철남동무와 종업원들이 스스로 견고결은 예국의 자욱이 수없이 적혀져있다.

도와줄것이 아니라 도맡아해 주자!

당의 새 세기 교육혁명방침선에서 펼쳐나선 이들의 사상관, 투쟁기풍과 일본새가 일꾼들에게 주는 교훈은 실로 크다.

일이 바쁘다고 교육단위들에 갈 나가지 않는 일꾼들, 교육지원사업을 학교지원원간에 무엇을 조금 해결해주는 식으로 대치하는 일꾼들과는 얼마나 대조적인가.

모든 일꾼들이 이렇듯 당의 승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교육사업을 자기 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교육단위들에 자주 찾아가 어려운 일감을 스스로 도맡아나서며 이 땅에서 후대사망의 대항원은 더욱 만만하고 인재대군의 발돋움시키는 강산을 전담하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김병훈

우선적으로, 책임적으로

◇ 교육기관들을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꾸러주기 위한 경쟁열풍이 지금 온 나라에 새창이 일어났고있다.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속에서 교육기관들을 도와주는 사업이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벌어져 지금 각급 대학들과 학교들의 면모가 하루가 다르게 일신되고 있다.

전국의 도, 시(구역), 군당위원회에서 지역의 교육기관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교육기관들을 도와주는 사업을 틀어쥐고 내밀면서 그 진척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며 총화사업을 심도있게 진행되고있다.

이처럼 전국적인 범위에서 날을 따라 더욱 고조되는 도, 시(구역), 군별, 후원단체별경쟁과 더불어 지난 시기에 비할 수 없이 많은 컴퓨터와 영자화기기, 현대적인 실험실시설비들이 마련되며 교육기관들의 현대화, 정보화사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 교육지원사업은 다른 모든 일에 앞서 진행해야 할 우선적인 사업이며 모두가 주인이 되어 펼쳐나서야 할 책임적인 사업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들에서 교육사업을 자기 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언제나 깊은 관심을 기울이며 교육부문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을 공부시키는데 선진적인 관심을 돌려야 함을 잊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먼저 자식들에게 배울의 재미를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식들의 배움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식들의 배움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

우리가 무엇이 좀 부족하다고 하여 교육사업을 우선으로 밀어넣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조국의 발전이 더디어져 중대한 나라의 민족의 존엄도 지켜볼수 없는 파국기술의 노예가 될수 있다.

본사기자 김병훈

분교는 작아도 학부모는 수백명

신평군의 어느 분교에 가보아도 교원들은 한결 같이 자기 분교의 학부모는 수백명이라고 말한다.

분교라 하면 한두명도 안되는 아이들이 수십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작고그나마 교육단위인데 학부모는 수백명이라고 하니 정말 그 말이 의미깊게 느껴졌다.

위대 한 평 도 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하시였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자기 세대를 위하여뿐만 아니라 후대를 위하여 훌륭한 미래를 마련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를 지니고있습니다.》

산골진 신평군에는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을 위한 분교만도 20여개나 된다. 산이 깊고 골짜기마다 마을이 널려있는 지역특성과 관련된다. 그러하여 같은 책임일꾼들은 늘 분교들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전반기 12년제의 무교육의 실의 함께 최근년간 신평군에서도 부족되는 학교와 분교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군원로기지사업을 새로 내오면서 주민지구가 형성

된 고을리 읍목지구를 비롯하여 여러곳에 분교를 내오는 사업은 잘 추진되지 않고있었다. 군당책임일꾼은 그 원인이 이 사업을 학교가 일부 단위에만 맡겨놓는데 있다고 보았다.

즉시에 일꾼들의 협의회가 열리고 여기에서 분교건설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통이 큰 대책들이 세워졌다. 협의회에서 한 군당 책임일꾼의 호소는 모두의 심장을 새창에 흔들었다.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이 비껴있는 분교를 결코 소홀히 대할수 없다. 그렇다면 누가 분교를 책임져야 하는가. 분교의 주인은 웅당 군일꾼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분교를 책임진 교장이 되고 학부모가 되자.

이때부터 분교건설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이 다시 세워지고 군의 예비가 동원되었다. 군급과 단 일꾼들이 모두 펼쳐나서 분교건설의 열풍을 일으키고있었다.

《분교를 두고 안타까울 때가 많았읍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군일꾼들이 찾아왔을 때 정말 눈물이 있었습니다. 분교건설로부

스스로 맡아 안은 분공

우리가 강대농민 대학을 찾았을 때였다. 취재 과정에 대학의 책임일꾼은 대학을 성실성으로 도와주고있는 한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것이였다. 모교인 대학을 성실성으로 도와준것뿐 아니라 강대사망의 대항원에 대한 지원사업에 언제나 앞장서고있는 열정적인 그 일꾼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이며 강대목재가공공장 지배인인 한영호동무였다.

위대 한 평 도 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하시였다.

《후대교육을 위하여서는 아낌없이 넣읍시다.》

지닌게 9월말이었다. 한영호 동무는 최고인민회의 제 13기 제 2차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온 다음날 강대목재가공공장 지배인 한영호동무였다.

우리가 강대농민 대학을 찾았을 때였다. 취재 과정에 대학의 책임일꾼은 대학을 성실성으로 도와주고있는 한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것이였다. 모교인 대학을 성실성으로 도와준것뿐 아니라 강대사망의 대항원에 대한 지원사업에 언제나 앞장서고있는 열정적인 그 일꾼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이며 강대목재가공공장 지배인인 한영호동무였다.

본사기자 김병훈

강대목재가공공장 지배인 한영호동무와 종업원들

우리 당이 밝고 밝은 새 세기 교육혁명방침선을 잘 마무리하고 있는 점에

돌아보며 실례를 료해하였다. 그의 호소에 힘입어 모두가 열렬히 호응하며 펼쳐나갔다. 그들도 자식들을 가진 학부모들이 었던것이다.

그 이후 공업일꾼들과 종업원들의 지극한 애정을 받으며 짧은 기간에 생산된 수천개의 책상, 의자 등이 시인의 여러 학교에 가량게 되었다.

한영호동무가 교육사업을 위해 애써온것은 오래전부터였다. 지난 기간 그는 종업원들과 힘을 합쳐 교육단위들에 교구 비품뿐 아니라 컴퓨터를 비롯한 수많은 교육시설비들도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시인의 교육자들이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응당 할 일을 했을뿐입니다. 저도 일꾼이기 전에 자식을 가진 학부모입니다.》

우리 일꾼들이 한영호동무처럼 교육사업을 위해 애써야 할 분공으로, 패로써 맡아안고 애쓰면 우리의 사회주의교육제도는 더욱 굳건해질것이다.

본사기자 김병훈

당의 인민사랑, 후대사랑을 심장으로 받아들여온 긍지높은 한해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도 1 뿔을 맞는 류경구강병원과 옥류아동병원에서

너무도 뜻밖에 류경구강병원과 옥류아동병원에 찾아오셨었다. **평안북도인민위원회** 원수님의 품에 저지마다 안겨들며 목청껏 《만세!》를 부르며 격정의 눈물을 흘리는 인민들과 의사들에게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치료하는 모습을 보자고 말씀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그날의 자애로운 말씀이 오늘도 인민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고있다.

어느덧 한해가 되었다. 병원관리운영과 치료에 방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여주시며 크나큰 은정을 기울여주시던 영광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1년간과도 같은 여정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으며 어떤 자랑들이 꽃피었는가.

이 일꾼들의 실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데 기초하여 그들의 수준에 맞게 학습내용을 짜고있으며 매일 과제를 제시하고 필답의 방법으로 평가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능한 의료일꾼들과의 긴밀한 관계에 의해 그들의 실력을 높여주는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하니 일꾼들이 앞장에서 서서 자기 과업의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품을 쏟고 있다. 일꾼들속에서는 전공분야의 표준치료를 위한 계획의 세우고 부단히 노력하는 학습기풍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병원에 차 넘치는 학습열풍과 더불어 과학기술지식보급사업은 더욱 활발히 진행되었다. 새 세대의 의료일

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에서 모두 풀어주셨지만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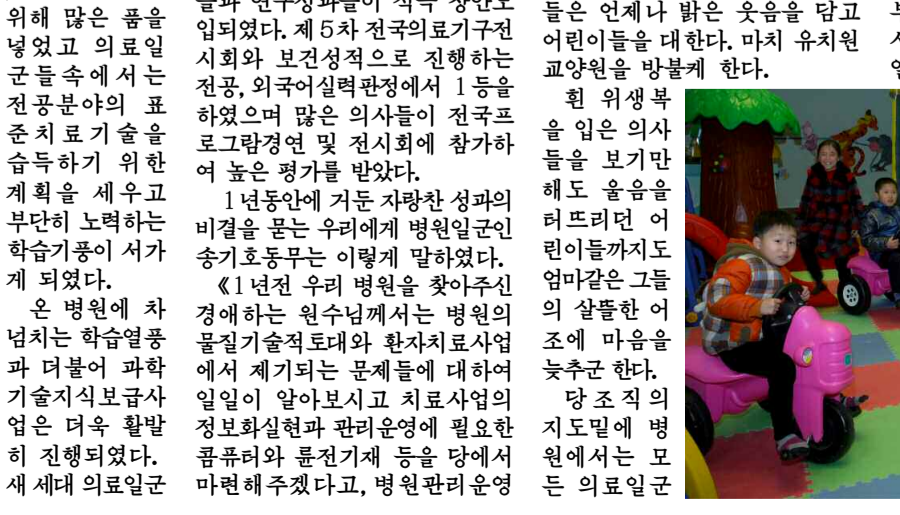
그러한 한가지 부족되는것이 있었다.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 워낙히 해도 자습식교육이 될 수 없었다. 교수자들이 많은 것도 좋지만 하나의 자료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리용할수 있게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였다.

일꾼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해당 단위들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2차례에 걸쳐 7만여건의 자료를 새로 구입하였으며 이것을 구비해서 리용하여 마음껏 학습할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렸다. 새 지식에 대한 갱신기가 빠른데 맞게 여러 계기들을 리용하여 최신자료들을 구입하는 사업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

결과 치료에방사업에서는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첨단과학기술에 의거한 새로운 치료방법들과 연구성과들이 적극 착안되고있었다. 제 5차 전국의로기지사회와 보건성으로부터 진행되는 선진, 외국의학관련에서 1등을 하였으며 많은 의사들이 전국포럼과 같은 대회에 참가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1년동안 거둔 자랑찬 성과의 비결을 묻는 우리에게 병원일꾼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1년간 우리 병원을 찾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병원의 물질기술적로대와 환자치료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일일이 알아보시고 치료사업의 정보화실현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컴퓨터와 통신기재 등을 당에서 마련해주셨고, 병원관리운영



본사기자 김 옥 별 본사기자 리 진 명

침략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야말것이다

미국과 괴뢰들의 《키 리콜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보다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갔다. 《키 리콜브》가 조선반도유사시를 가정한 여러가지 북침작본들을 모의완성하는 지휘소연습이라면 《독수리》는 그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대규모의 야기기동연습이다. 《키 리콜브》와 《독수리》가 쌍둥이처럼 붙어다니는 리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과 괴뢰호전관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침략무력과 최신전장장비를 투입하여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광범위하고는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적으로 과격적효과를 미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괴뢰들은 저들의 훈련에 대해서는 《도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느니 뭐니 하고 변명하면서 도리어 그 누구의 《군사적, 언어적, 전장장비》를 광고하며 《강력한 대응태세》를 띠고있다. 이것이야말로 도적이 이 매를 뜨는 격의 망동이 아닐수 없다. 적대세력의 침략행동에 대한 우리의 초강경대응은 가증되는 북침핵전쟁위협으로부터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조치이다.

우리 공화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파괴에 처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종일관 인내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데 대한 절세위인의 애국적호소를 바라며 조선반도에 선 전쟁위협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중대적 노력을 취하였다.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은 내외의 적극적인 공감과 지지찬동을 불러일으켰으며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북침합동군사연습의 중지 조에 화답해 이 한다는 여론이 높아갔다.

그러나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괴뢰호전세력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평화

에 호적노력에 《키 리콜브》, 《독수리》 북침합동군사연습의 강행으로 도전해나섰다. 미국과 괴뢰들은 지난 13일까지 진행된 《키 리콜브》 합동군사연습을 통하여 조선반도유사시에 적용할 합동전장장비들의 현실성과 불의적인 공격성을 류형별, 단계별 다시금 확정하였다. 그 무는 《극지도발에 대응》한다는 구실밑에 꾸며낸 《공공지도발대비계획》에 따라 30여개의 류형별공격방안이 검토되었다고 한다. 연습에는 북침핵전쟁공격각본인 《맞출형적전력》도 적용되었다. 호전관들은 지금 그에 대하여 북침실질능력을 보다 더욱 높이기 위한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며칠동안 가행하고있다. 이런 속이 미국이 일본 오키나와의 미제 31해병연정부대에 이어 오스트랄리아에 있는 미해병대 무력을 48시간만에 전선에 투입하기 위한 전장수송계획까지 세우고있다는 것이 기록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진적고강경대응으로 다스리는것은 너무도 당연한 리치이다. 북침전쟁행준에 걸린 미국과 괴뢰호전관들은 입이 열려도 그 누구의 《도발위협》에 대하여 떠들어댈 명분도 자재도 없다.

침략자들에게 대한 무자비한 초강경대응은 반미대결전에서 편전련성의 역사만을 기록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진적고강경대응이다. 원수들이 칼을 내대던 장경으로 내리치고 핵으로 위협하던 보다 강력한 핵억제력으로 맞받아나가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립장이고 본래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미 지내 조선전쟁시기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참패를 안기고 제국주의우두머리를 서신워일의 운명에 몰아넣었다. 지난 세계 60년대에 있는 《후에블로》 호사건은 허장성세하여 날뛰는 미제를 우리가 어떻게 무릎 꿇게 하는가 세계우에 똑똑히 보여주었다. 당시 미제는 항공모함타격집단을 비롯한 방대한 침략무력을 조전전선에 끌어들이며 그 무는 《보복》을 운운하였다.

하지만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똘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적들에게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담할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우리의 초강경대응에 질겁한 적들은 결국 굴복하고야말았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반공화국핵소동을 미친듯이 벌이며 모험적인 《랩스 피트 93》 합동군사연습으로 정세를 초강상태로 몰아갔을 때에도 우리는 준전시상대선포와 핵무기전과방지조약에서의 탈피선언으로 분별없이 헤메이는 적들에게 다시한번 뒤통을 안기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자위적침략행위를 위한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 고 경제제재와 정치내정간섭으로 압박을 가했지만 우리는 적대세력의 도전을 선군의 위력으로 겹겹이다 짓부셔버리고 성공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와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오늘의 장강한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 그 위용을 온 누리에 떨치고있다.

지금 남조선은 물론 미국내에서까지 괴뢰들이 하비처럼 쉴기는 오바마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정책대서정체내다 하여 《완패한 정책》이라는 조소가 끊이지 않고있다. 우리는 그 《완패한 정책》을 미국과 괴뢰들의 중국적대정책으로 보기 좋게 결속시켜줄것이다. 우리의 평화애호적이며 애국적진언의 위와 이양에 북침핵전쟁연습으로 도전해나선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어야 한다.

적으로, 신제적으로 취해지는 가장 적극적인 물리적공세이다.

조선반도에서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핵전쟁도발소동은 반애가 넘도록 지속되고있다. 그로 하여 우리 민족이 당하는 정신적, 물질적피해와 고통은 헤아릴수 없다. 남조선괴뢰들의 북침핵전쟁도발소동을 광장내고 조선반도의 공교로운 평화를 실현하여야 할 성스러운 임무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어깨우에 지워져있다. 내외의 한결같은 반대규탄에도 불구하고 북침핵시합전쟁을 광범적으로 벌리면서 조선반도에 일출침략의 초강경대응을 몰아오는 미국과 괴뢰호전관들의 분별없는 망동을 그대로 내버려두었다면 그 결과는 실로 엄중할것이다.

조선반도에서 벌어지는 의외와 그 주구들의 범죄적인 핵전쟁도발소동을 결코 보고만 있을수 없으며 이제는 그것을 단연고 광장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다. 미국과 괴뢰호전관들이 전쟁연습을 《정예화》, 《년례화》 하는것으로 북침의 야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로골적으로 표명한 이상 우리 혁명무력은 보다 강력한 보복대응을 나서게 될것이다. 우리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 혁명무력의 모든 타격수단들이 지상, 해상, 수중, 공중, 싸이버공간 등의 작전수행행동에서 언제나 지정받은 목표들을 조준하고 발사전상태를 유지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은 물론 미국내에서까지 괴뢰들이 하비처럼 쉴기는 오바마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정책대서정체내다 하여 《완패한 정책》이라는 조소가 끊이지 않고있다. 우리는 그 《완패한 정책》을 미국과 괴뢰들의 중국적대정책으로 보기 좋게 결속시켜줄것이다.

우리의 평화애호적이며 애국적진언의 위와 이양에 북침핵전쟁연습으로 도전해나선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어야 한다.

리효진

모락군들이 본전도 못 찾을 무념질

엄마건 괴뢰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정종욱이라는 자의 실토에 의해 《통일준비위원회》라는것이 범죄적인 《세계통일》을 위해 조직된 모략구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이로 하여 남조선 각계에서 항의규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우리 공화국과 온 겨레의 추상같은 단위가 비탄이 차하는데 비바는 괴뢰대장은 여드레 앓는 호박에 이 안드는 소리같은 허튼수작만 늘어놓고있다.

얼마전 괴뢰통일부는 저들이 《평화적통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뉘니 하고 너스메를 떨면서 《세계통일》을 준비한다는 《북의 주장》은 사실이 맞지 않는다.》고 꾸짖질하였다. 그러면서 저들의 《통일준비》는 그 누구를 《고립》시키려는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되게 하려는것이 아니라, 《평화통일노력》에 하주속히 호응》하라느니 하는따위의 패먹지 않은 수작도 늘어놓았다. 그들이 저들의 불순한 흥계가 들쭉날쭉 당창창조자들이 내외의 규탄을 모면해보려고 둘러대는 구구한 변명, 철면피한 뉘뉘리라는것은 온한 여지도 없다.

물건대 도대체 무엇이 오래한 말인가. 가중고 말해서 우리는 애당초 그 무는 《신뢰조성》과 《교류협력》, 《평화통일》을 실현한다는 미명하에 괴뢰침략자가 《통일준비위원회》라는것을 조작해낸 때부터 그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 모르는바 아니었다. 도적이 제 말에 잠깐하고 괴뢰침략자의 흉심은 다져 누구도 아닌 자기 하수인의 토설에 의해 여지없이 폭로되었다. 그런데도 무는 전사실질인가.

또 하나 물건대 남조선당국이 《평화적통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미명하에 북침전쟁연습소동과 내걸고기 비열한 반공화국《인권》판대고, 베라살포방동은 왜 계속 벌려놓고있는가. 벌은 물을 마시고 꿀을 만들지만 거미는 물을 마시고 독을 만드는다 말이 있다. 수효든 온통 독에 대한 적대감과 대결야망만 가득차있는 괴뢰대장인저라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해지고 《세계통일》을 이루고자 실현하려고 이처럼 괴뢰를 몰고 나려고하는것이다.

이반에 괴뢰통일부 장관자리에 새로 들어있는 홍용표는 취임연설에서 온 겨레가 그의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통일준비위원회》를 국구 비호부둔화한다 《건립할 계획》 할것이라고 떠벌어댔다. 이것은 괴뢰들이 내외의 규탄의

목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반민족적인 《세계통일》 책동에 계속 매달리겠다는것을 공공연히 선언한것이 나 다음이다.

괴뢰들은 찍하면 그 누구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만들겠다고 나발질하고있다. 그것은 사실상 우리의 《변화》와 《개혁, 개방》을 괴뢰하며 《세계통일》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잠꼬대같은 수작이다.

우리의 존엄높은 제도를 감히 어찌보려는것은 눈앞의 현실도 볼줄 모르는 창매파나들의 추태 일뿐이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암살책동을 선군의 위력으로 단호히 짓부셔 버악의 나래를 한결 펼치고있다. 그 길에서 편이 펼쳐지는 놀라운 사변들은 세계를 경탄시키고있다. 그런데 괴뢰들이 이 엄연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아직도 어리석은 망상에 《세계통일》이 되리니 이 얼마나 가련한자신인가.

괴뢰들이 《평화통일노력》에 대한 호응을 운운한것은 더욱 가소롭게 그지없다.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할 당사자는 다만 남조선당국이다. 괴뢰대장은 미국에 추종하며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미친듯이 벌이고 우리 공화국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는 《인권》모략과 베라살포방동에 매달리는것이 북남사이의 체제대결을 격화시키며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검은 구름만 몰아온다하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제 할바는 힘이 없었고 뽀얏게그 무는 《평화통일》에 대해 꿰지고있으니 그 낫가죽이란 정말 골발탈도 더 두렵다고 해야 할것이다.

허영민

살벌한 폭압소동, 지숙는 분노

지금 남조선에서 반박근에게 라살포등재가 격렬하게 전개되는데 당황해한 괴뢰대장이 폭압소동에 광범위하게 나섰다. 괴뢰경찰은 12일 대수시에 있는 한 출판사 대표의 집과 작업장에 달려들어 강제수색하고 베라 300여장과 손전화기를 압수하는 폭압적폭행을 감행하였다. 이에 앙쓰 그 의 이해가 운영하는 출판사에 들어다친 경찰은 일화하고있는 성원들과 작업장을 활형하는 망동짓을 하였다. 지난해에 이어 대표가 《새누리당》 대수시당사에서 책과 근해를 비판하는 베라를 붙잡고 하면서 이러한 폭거를 감행하였다. 이날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사회활동가 박성수의 집과 베라적폭압으로 평민된 인쇄소에 괴뢰경찰들이 달려들었다. 괴뢰경찰은 그가 지난 1월 박근에게의 정책과 현 정국을 비난하는 베라를 만

들이 뿌렸다고 하면서 강제수색에 돌아왔다. 이에 격분한 그는 13일 전라북도 군산시 괴뢰전주지방법원 군사지원원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그는 박근에게 국정운영을 바로잡기 위하여 국권의 요구를 담아 베라를 뿌렸다고 하면서 이를 그 무는 《영애문서》로 몰아 탄압하는것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민중의 가슴에 칼을 찔는것이라고 단죄하였다. 또한 경찰서에 출두할것을 요구하자 그는 《경찰은 개혁이 완료되지 않고 박근에게 더욱 열심히 꼬리를 흔드세요.》라는 글의 의역전 구호를 들고 걷는 사전을 인터드미에 울리고 개혁이 완료되면 군산경찰서에 보내는것으로 항거하였다. 뿐만 아니라 15일에는 군산경찰서에서 《베라 공판물이 당장 중단하라. 탄압탄압꾼 꼬로 뿌려주마.》고 하면서 개혁이

복침엽에 들 썩 괴뢰당국이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에 광범하는 한편 반공화국《인권》모략책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엄마건 《새누리당》 대변인은 반공화국적대세력의 도발소동을 대한 우리의 초강경대응의지에 대해 그 무는 《북인권에 대한 부정》이느니 뭐니 하고 악담질하면서 《국회》에서 《북인권법》을 빨리 통과시키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자는 《북인권법》제정이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이라는 잠소리까지 꿰치려고했다.

지금 《새누리당》과 괴뢰당국은 야당에게 수습리면서 어떻게 하나 《북인권법》을 조악하고 갈망하고있다. 발 알리바이이지만 동종의 사상과 제도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과 《세계통일》망상에 빠졌는 《새누리당》파괴를 의미 오메년부터 《북인권법》이라는 것을 《국회》에서 조작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져왔다. 하지만 《북인권법》조작시도는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부딪혔다. 《북인권법》이 그 누구의 《인권증진》이라는 간판밑에 사실상 반공화국베라살포에 미쳐날뛰는 인간쓰레기들을 합법적으로 지원하는 등으로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이어 전쟁발발의 위험마저

《인권》소동은 침략의 전주곡

괴뢰통일부 장관자리에 새로 들어있는 홍용표는 취임연설에서 온 겨레가 그의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통일준비위원회》를 국구 비호부둔화한다 《건립할 계획》 할것이라고 떠벌어댔다. 이것은 괴뢰들이 내외의 규탄의 리효진

현위를 기초하여 날조되고 감행했던 서기문에서 불과하다 그것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무성의 《북인권특사》를 비롯한 어중이 떠중이들은 우리의 악랄한 결고에도 존엄높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대 변형적인 거부감을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미국과 괴뢰들은 구린내나는 토론회장에 조국을 반역한 인간쓰레기들을 끌어들이고 《북인권법》제정의 국제적공조를 떠벌리며 반공화국대결정책을 국구 고취하였다. 이것은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 미제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증오와 복수심을 더욱 폭발시켰다. 가중치를 더하고 미제를 모조리 격멸소탕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명분을 거어 성취하기 위한 반미총결전에 펼쳐나선 천만민국의 필승의 기상과 의지는 천지를 진감하였다.

현실이 보여주다는지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고 쟁위협을 몰아온 장본인은 다만 남조선과 그에 적극 추종한 괴뢰대장이다. 미국과 괴뢰들이 우리 인민이 선택하고 목숨바쳐 지키가는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한사코 암살할 흥심밑에 인간쓰레기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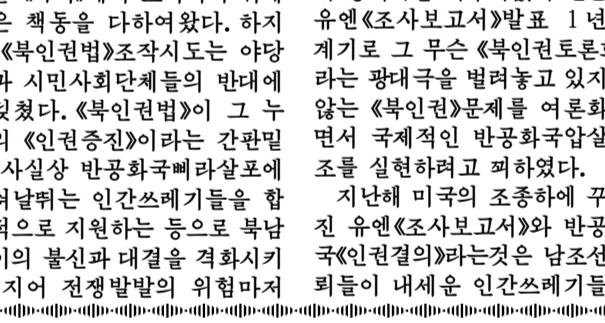
소를 끌어들이는데 적극 나설것이라고 공언하였다. 괴뢰보수세력의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은 그야말로 회절정에 달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 미국과 괴뢰호전관들의 합동군사연습이 감행되고는 속내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이 일출 강화되는것은 매우 위험한 사태이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그 무는 《북인권법》이느니 뭐니 하며 침략의 구실을 마련하고 이미 시작한 합동군사연습을 북침을 위한 전진전습으로 전환시키지 않겠다고 과연 누가 장담할수 있는가.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이야말로 절대로 목과할수 없는 북침전쟁도발의 전주곡이다. 현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반공화국적대세력의 침략적도에 맞서 초강경대응을 선포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판가리결전에 펼쳐나선 것이 얼마나 정당한것인가 하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립충케 해주었다.

본사기자 장윤남



제11차 전국농업근로자통구경기 16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있었다. 참선수들은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는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대중체육을 활발히 벌여오는 과정에 편만한 통구기



참선수들은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는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대중체육을 활발히 벌여오는 과정에 편만한 통구기

집 단이 한 마음 한 뜻 이 되여

순천구두공작장 주문자업반의 작업반원들이 서로 돕고 이 끝에서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끝내 수행하고있다. 여기에 작업반원들의 생활을 철부지의 삼정으로 꾸미고 돌봐주고있는 작업반장 김충을, 당세포비서 함성철동무들의 진정성이 비껴있다. 이들은 언제나 친혈육의 정으로 작업반원들

의 생활에 마음을 쓰며 걸린 문제를 알아보고 풀이주고있다. 작업반원들의 가장도 정상적으로 방문하고 마음속고충도 헤아려주면서 반원들을 혁신의 한길로 이끌어주고있다. 이들의 다짐한 정은 그대로 작업반원들이 맡겨진 혁명업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는 성과로 이어지고있다. 작업반원들이 이등

노동통신원 장정숙

어디서나 만들어 덕을 볼수 있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 공업시험소 일군들과 연구사들의 단열내화벽돌 생산도입과정을 놓고

우리와 만단 공업시험소장 최현철동무의 손에는 한창의 내화벽돌이 쥐여져있다. 크기는 보통내화벽돌과 다름없었다. 그런데 무게는 아이들도 한손으로 쉽게 들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벼웠다. 《우리 시험소에서 만든 단열내화벽돌입니다.련합기업소에서는 지금 이 벽돌을 리용하여 여러 대장설비생산과 관련한 열처리를 하고있는데 적지 않은 실리를 얻고있습니다.》 흥미가 동하였다. 이 벽돌은 화력발전소들에서 나오는 연재로 큰 품질을 들이지 않고 쉽게 만들수 있는데 리용가치가 대단하다고 한다. 주목되는것은 이 벽돌의 적외선반사율이 80%이상이고 열전도계수가 매우 작아 열효를 대단히 높일수 있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로만의 온도가 1300℃인데 두께가 10cm인 벽돌의 바깥면온도는 45℃를 초과하지 않는다는것이였

다. 그런것으로 하여 열처리에 이 벽돌을 리용하면 온도상승속도가 2배이상으로 높이고 단위시간동안 전과 같은 전력과 연료를 리용하면서도 생산성을 2배이상으로 장성시킬수 있다고 소장이 말하였다. 현실에서 은이 나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올해에 우리는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사회주의 경제강국, 문명국건설에서 전진을 이루어야 할다.》 북대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 보내준 미루대치차의 열처리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였다. 직경이 4m를 훨씬 넘고 중량이 6t이나 되는 치차를 열처리장치의 열처리로서 가열한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이였다. 로의 제적이 제환되었던 것이었다.

이만 한 구역을 형성하고 그곳에 전열판을 배치하였다. 다음 약간한 공간을 두고 그우에 치차를 띄워놓았다. 그리고 치차의 주위를 따라가며 단열내화벽돌을 때부어 놓아주고 치차의 옷쪽에 벽돌을 한벌 덮어놓았는데 이 준비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벽돌을 때부어 놓은 후 미루대치차를 열처리하는데 5시간 걸렸다. 그러 하여 얼마만 한 실리를 얻었는데, 열처리장치의 로에서 한번에 30의 부속물들을 열처리한다고 할 때 이에 필요한 시간은 대대로 12~15시간이라고 한다. 미루대치차의 중량이 6t이고 열처리시간이 5시간이라는 점을 대비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두배의 중량물을 처리하면서도 7~10시간을 단축한것이였다.

전력소에서도 뚜렷한 대조가 나타났다. 이번이 소비된 전력을 종전의 열처리로서 소비된 량과 대비해보면 순수로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단속형 7~10시간까지 고려해볼 때 경제적으로 소비된 전력량에서의 차이는 매우 크다. 얼마나 좋은 일인가. 여기에서 큰 실리를 얻은 련합기업소에서는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 보충 중요대상설비의 공기양조공판들의 제작도 이 방법으로 하였다. 이 성과는 공업시험소의 연구사들을 적극 도와주고 계되는 착상들을 실현에 적극 응용해나가도록 떠밀어준 련합기업소 책임인군들의 역할을 떠넘기는 생각할수 없다. 또한 북대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 달려나고 벽돌생산을 위해 낫과 밤을 이어가며 긴장한 전투를 벌인 박원국, 리정남, 김장선, 최성일, 허철림동무들을 비롯한 공업시험소 연구사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것들이었다. 지금 이 련합기업소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여러 단위의 일



더 좋은 감자종자를 보내주기 위한 연구사업에 열정을 바쳐간다. - 농업과학원 감자연구소에서 - 본사기자 적음

본사기자 장윤남

